

## 대전 도안지구, 대장동 게이트 보다 더 큰 ‘의혹’

대전 도안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 보다 몇 배 더 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CTN에 전달된 제보에 따르면 대전 도안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은 유성구 학하동, 용계동, 복용동 일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2-1, 2-2지구 합계; 826,312㎡, 약25만평, 약9400세대)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대부분 공동 주택(아파트) 용지로 개발 예정된 구역을 도시개발법을 적용 민간 업자가 강제 수용해 아파트 분양사업 하도록 대전시장이 인가해 왔다고 했다.

또 그 과정에서 대전시청과 유성구청이 많은 위법과 편법, 특히 등으로 법원 판결 등에 의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제보내용을 보면 “공공개발 명분으로 20년간 묶어 놓아(개발행위 제한 구역 및 건축행위 제한구역 지정 등) 국민 재산권 행사를 억제하고, 자가

를 인위적으로 낮춰(주변 시가의 반에서 반) 놓고는, 이를 민간업자에게 개발권을 쥐 그 차액(초과 이익)을 민간 업자가 전부 착복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이는 자가 차이만 단순계산으로도 약 2조 5000억원으로 천문학적 숫자이고, 대장동 금액을 몇 배 뛰어 넘는다”면서 “수요가는 평당 200만원이 안됐으나, 실제 아파트 분양가는 대전 최고가를 찍었다”고 했다.

문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의’ 생산녹지지역 개발제한’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인가라는 사실이다.

도안지구 개발사업에 적용한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구역 내에 생산녹지가 30%가 넘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될 수 없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1항 1목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구역은 도시지역에서는 생산녹지지역인 경우 생산녹지지



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고 명시돼 있으나 대전시장은 위법하게 개발구역지정을 강행했고, 현재 법원에 의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있는 도안지구 개

발사업의 뒷배경에 현 정부의 실세가 개입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개발사업의 철저한 수사로 위법과 특혜 등으로 인해 국고손실과 주민 피해 등에 대해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민준 기자

## 서산시1388청소년지원단, 합동 청소년보호 활동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한국청소년보호연맹

서산시1388청소년지원단(단장 가금현)은 지난 29일 성연면 테크노밸리에서 야간 찾아가는 아웃리치 활동을 가졌다.

특히 이날 서산시 여성가족과(과장 김기운),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박주영),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서산·태안지회(지회장 가금현) 합동으로 청소년 일탈방지 캠페인, 야간 순찰, 공동화장실 물가 불법설치 점검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번 찾아가는 야간 아웃리치는 최근 신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테크노밸리 내 중심상가와 식당과 술집 등이 밀집된 곳, 공원 중심으로 조를 나눠 이뤄졌다. 캠페인은 1388지원단이 준비한 홍보물을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을 홍보했다.

또 공원과 상가중심에 위치한 공동화장실에 대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물가가 불법 설치되어 있는



지 등에 대해 기기를 통해 꼼꼼하게 점검했다.

김기운 과장은 “공직자와 봉사자가 함께하며,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

을 마련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자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성진 기자

## 당진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3관왕’ 달성

주민자치 분야, 지역활성화분야, 제도정책분야 자치분권상 수상

당진시가 지난 달 29일 제2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주민자치 분야, 지역활성화 분야, 제도정책 분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 ‘자치분권상’을 수상하며 지난해 대상 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은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학습공동체, 주민조직네트워크, 특별공모, 제도정책분야 등 모두 6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으며, 전국에서 총 322건의 사례가 응모돼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심사, 3차 온라인 전시관 심사를 거쳐 최종 70곳이 선정됐다.

당진시는 면천면행정지원센터와 당진3동행정지원센터, 당진시청 주민자치팀에서 총 3개의 사례를 제출했으며, 모두 우수사례로 선정돼 ‘자치분권상’을 수상하며 주민자치 선도

지역으로서의 자부심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당진 3동은 주민자치 분야 ‘공간에서 공간으로 꽃 피우는 당진 3동’ ▲면천면은 지역활성화 분야 ‘행복마을 면천 주민자치 거목으로 자라나’ ▲시청 주민자치팀은 제도정책 분야 ‘상향식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사례를 제출해 코로나19로 주민자치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룬 쾌거로 그 의미가 더 컸다.

공동체세마을과 안봉순 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활동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돼 자랑스럽다”며 “주민들의 열정과 참여에 항상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금현 기자

## 서산시, ‘사랑의 집나눔회’ 사회봉사 대상 수상



서산시 사랑나눔 봉사회(회장 문대현)은 3일 서울 하이스터유스호텔에서 한국사회봉사회연합회가 개최하는 2021년 대한민국 사회봉사대상 수상식에서 물적나눔분야 단체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원해 올해 8회 사회봉사대상은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하여 전국 사회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받은 870여건의 단체와 개인 대상자 중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지역

나눔, 물적나눔, 공적나눔분야별 각 3명씩 9명(단체3개)을 시상했다.

사랑의 집 나눔회는 2003년 11월 건축관련업을 경영하는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재난이나 집이 없는 취약계층 가정을 선정, 18년동안 15호를 신축했으며, 최근 팔봉에서 15호 나눔의 집을 회원들이 직접 시공 기증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물적나눔 단체상을 받게 됐다.

/가금현 기자

## 가금현 시인, 네 번째 시집 ‘역새가 너를 닮았다’출간

가금현 시인(CTN 발행인)이 네 번째 시집 『역새가 너를 닮았다』를 출간했다.

이번 네 번째 시집은 지난 7월 『저 멀리 보이는 너』 출간 후 3개월 만에 내놓는 작품이다.

가금현 시인은 서문에서 “올해는 유난히도 답다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더운지 모르고 지나간 여름이었고, 코로나로 인해 어렵다고 하나 나는 그렇게 어려울지 모르고 지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시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에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세 번째 시집까지 발행하고 나니 그만큼 낮이 두꺼워진 것일 것”이라고 했다.

또 “올해를 시작하며 두 권의 시집을 내야겠다는 속내를 누군가에게 내비친 적이 있어 그것이 욕심일 수 있겠다 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 나는 분명 행복한 사람으로 이번 네 번째 시집을 출간할 수 있도록 도움 준 모든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가을바람이 가슴을 스치며 속삭이며 ‘올가을은 내 마음에 가득 담았던 사랑도 영글어 가라’고 말하고 싶다”고 적었다.

가금현 시인의 이번 작품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중년층이 이 시집(역새를 너를 닮았다)을 읽게 되면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소중한 뭔가를 꺼내 다시 한번 가슴 뿌듯하게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될 듯 싶다.

한편 가금현 시인은 충남 태안 남면 출신이며 남면초·서남중·서령고를 졸업하고 예산농전(현 공주대학교)을 거쳐 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편입 졸업한 뒤, 이어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청소년교육상담을 전공했다.

/홍유선 기자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아동학대 예방 앞장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원장 박영의)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 간에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응하고자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가정 환경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코로나 사태 이후 전세계 아동 학대 2배 증가**

아동학대 신고사례는 보건복지부 기준 2016년 1만 팔천 건에서 2019년 3만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코로나19의 장기화 로 경제 어려움과 가족 갈등이 늘어 나며 이전 8%에 불과하던 가정폭력 경험 비율이 17%로 두배 이상 급증 했다.(세이브더칠드런, 2020)

■ **어릴 적 겪는 학대, 성인의 문제로 이어질 수**

아동학대는 즉각적인 유해한 신체적 영향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어 교육수행 어려움, 낮은 자존감, 우울증, 관계 형성 및 유지 곤란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은 성인이 된 후 자살 시도나 범죄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배승민 교수는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커서 감정을 소화해내는 능력이 부족해, 자해·극단적 시도 등 더 큰 심리적 충격을 주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 **가족의 관심 및 신뢰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중요**

충청남도진흥원 2019년 및 2020년 연구조사에 따르면 부모와의 갈등 관계

및 방임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며, 가족의 관심 및 신뢰가 보호요인이 된다고 나타났다. 이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정신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가족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나 자녀가 어려서 대면 교육 참석이 어려운 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 시행**

청소년의 자살·자해 신호를 파악하고 가정에서 대처 할 수 있는 방법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을 검색하면 별도의 수강 신청 없이 실시간 수강이 가능해 부모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대면교육으로는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집단 상담이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 또 지난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발을 위한 정서조절 부모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집단 상담에 참가한 참가자 전원이 양육효능감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순실 센터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6개 충남, 시·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력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백순신 기자